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8689)목포시 비파로 64(상동) 한솔빌딩 5층 T.061-283-4571 F.0303-0955-4571 www.okmokpo.or.kr

■ 공동대표: 송영중, 김신규, 박승욱, 조순형 ■ 집행위원장: 김광배

■ 정책위원장: 하상복 ■ 무안군민회장: 조기석 ■ 간사: 김창모

| | |
|----|---|
| 수신 | 각 언론사 |
| 발신 | 목포경실련 |
| 문의 | 목포경실련 (김창모 간사 / 061-283-4571, 010-9143-0728.) |
| 일자 | 2017. 09. 14(목). |
| 제목 | [성명] 김철주 무안군수 자리연연하지 말고 군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라.(총1매) |

김철주 무안군수 자리연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지난 7월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
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김철주 무안군수와 함께 친형,
관련 공무원 등도 구속기소가 되면서 무안군은 전국적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시간들이
었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철주 군수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군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친·인
척과 측근이 연루된 군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적으로 현재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는 군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
다. 행정공백을 초래한 책임, 친·인척과 연계해 자행한 불법비리에 대한 책임, 인사권과 직위를
활용해 탄원서를 작성하게 한 책임. 나열하자면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참혹할 정도로 심각
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자체 부패지수(5등급) 전국82개 군 단위 중 79위, 부패발생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 오명으로 기록된 무안군의 지표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자리에 연연하는
추태는 그만 보이고 우선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 다음 재판에 대한 기대는 접어두고 공식적
으로 사과와 사퇴를 표명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끝>